

## 캠퍼스 이슈



진정한 이원화 캠퍼스를 위해서는 세밀한 상호배려가 필요하다.

(사진=장혜림 · 허지영 기자)

# 이원화 캠퍼스 인식개선 위해 리브랜딩 필요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우리학교가 법적으로 이원화 캠퍼스가 된 지 9년째이지만 외부의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도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를 분교로 오기하거나,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구분해 표기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국제캠 학생 A씨는 금융자산 어플 '토스'의 학자금대출 관련 항목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가 본교로 표기돼있던 것을 발견했다. 이내 토스 담당 팀에 '경희대학교는 이원화캠퍼스이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 되어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문의를 남겼다. A씨는 "처음 문의했을 땐 한국장학재단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 '경희대학교 서울캠(본교)'가 아닌 '경희

대학교 서울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관련 내용을 다시 담당 팀에 전달했다"며 "그러자 토스 측에서 제대로 된 표기로 시정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또한 A씨는 "정당하게 입학한 경희대학교 학생인데, 국제캠퍼스가 분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다"면서 "분교 인식에 학교나 학생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문이었고 나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문의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대학 표기에서 서울캠과 국제캠이 구분된 경우는 학생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논란을 인지한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원화 표기 정정 창구를 운영 중이다. 총학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250여건이며, 총학 학사팀에서 5월 내로 해당 기업 및 업체에 문제제기를 통해 수정, 보완

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에서 총학의 건의를 받아들여 명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캠 총학은 학교 차원의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타 대학도 겪고 있는 이원화캠퍼스 인식 문제

우리학교 이외에도 분교 설립 이후 본교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제2캠퍼스 인식 문제에 대한 갈등을 겪었다. 현재 단국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에서 기존 분교를 제2캠퍼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앙대는 안성캠퍼스(안성캠)가 분교로 오기되는 곤혹을 치렀다. 입시업체 진학사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안성캠이 '분교'와 '준 이원화 캠퍼스'로 표기된 것이다. 이에 안성캠 총학은 진학사에 사과문을 요청했고 이후 중앙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안성캠 홍보에 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안성캠이 분교가 아닌 이원화 캠퍼스임을 알리는 학교 측의 홍보가 부족했기에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이다.

### 유사학과 간 이원화

외부의 반응과 달리 우리학교 내

부 구성원들은 캠퍼스 별로 서울캠은 순수학문, 국제캠은 응용학문으로 특화된 영역이 있어 이원화된다고 말했다. 일부 유사학과도 캠퍼스 별 학과 명칭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학문의 내용이 달라 구분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캠과 국제캠의 대표적인 유사학과로는 영어학부·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의상학과·의류 디자인학과, 물리학과·응용물리학과, 화학과·응용화학과, 수학과·응용수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정보전자신소재 학과의 경우 두 과 모두 재료를 비중있게 다루지만, 그 초점이 디스플레이 기술과 신소재 및 재료 자체로 구분돼 있다"며 "디스플레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 하만 중점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다르기에 각자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학, 나노바이오물리학과 같이 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수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다른 유사학과들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서울캠은 순수학문, 국제캠은 응용학문으로 학과가 추구하는 방향성의 과목들이 배치돼있었다. 과승원(정보디스플레이 2019)씨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정보전자신소재 학과의 경우 두 과 모두 재료를 비중있게 다루지만, 그 초점이 디스플레이 기술과 신소재 및 재료 자체로 구분돼 있다"며 "디스플레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 하만 중점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다르기에 각자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원화캠퍼스, 홍보와 리브랜딩 필요한 시점

이원화 캠퍼스의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미디어학과 박종민 교수는 "학과 브랜딩과 캠퍼스 브랜딩 모두가 중요하다"며 "우리학교가 이원화캠퍼스라는 점을 명확하게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곳은 지역이름(서울), 한 곳은 국제라는 이름을 써서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예를 들어 서울을 고황캠퍼스, 수원을 경희캠퍼스로 명칭 하듯이 동일한 취지의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원화캠퍼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박 교수는 "내부적으로 동일하게 교육하고 기회를 주고 행정을 하는 진정한 이원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양 캠퍼스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학과를 제시하여 국제캠퍼스에도 서울캠퍼스에 비해 우위에 있는 학과들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홍보 방안으로는 "팸플릿이나 외부 홍보책자에도 반드시 서울캠, 국제캠 순서로 내용이 정리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꿔, 국제캠, 서울캠 순서로 배열하는 등의 세밀한 상호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제캠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은 "양 캠퍼스가 함께 이원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TF 발족 및 부서 업무 할당을 위해 논의 중이다"라며 "이원화 문제를 상시 접수하기 위한 민원 채널을 개설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처는 "국제캠 총학생회로부터 이원화 전담 TF팀 운영을 건의 받았다"며 "현재 준비 중인 단계이지만 신설되면 이원화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